



9면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탄력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음 6월 10일) 제 354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속가능 미래 부안'

김관영 지사 시군 방문 - 부안

부안군민과의 대화로
주요 정책 방향 공유
자연에너지공원 조성 등
지역 중요 현안도 논의
온가족센터 등 방문도



지난 12일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안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김관영 도지사가 부안 온가족센터를 방문해 센터 아동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안군은 지난 12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안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부안군의회를 방문해 군의장, 군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 후 언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분위기과 여론을 경청했다.
이날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부안군민과의 대화로 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생생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전북자치도와 군이 한데 힘을 모아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현장에서는 부안군민들이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 지원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행정

안전부 청년마을사업 재추진 △크루즈 관광객 전북 방문 관련 지원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중단 요청 등 부안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아, 돌봄,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온가족센터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센터 아동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부안상설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직접 장을 보며 지역 경제의 현황을 살폈다.
김관영 부안군수는 "부안군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군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자치도-한국지식재산보호원

푸드테크 공동협력사업 추진

내일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가입기업 대상 사업 설명회
기업 영업비밀·기술보호 현황 맞춤형 전략 가이드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이 전국 최초로 푸드테크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기업 영업비밀 보호에 나선다.
사업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koipa.re.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푸드테크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의 상담 및 교육을 하고, 해당기업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현황에 대한 맞춤형 전략 가이드가 제시된다. 또한, 법률전문가 및 센터 보안 인력이 함께 기업에 방문해 컨설팅이 지원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전국 최초 푸드테크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청과 지자체 협력사업을 기획했다.
그 결과 총사업비 1억원(국비 50%, 도비 50%)이 확보되어 푸드테크 42 얼라이언스 회원사 10개소에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이 지원된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공식 해산... 백서 내달 발간

과행을 빚었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대회 폐막 11개월여 만이다.
지난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는 지난달 28일 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정하고 전날(11일) 절차를 완료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정관상 행사 종료 1년 이내에 해산을 하도록 하고 있어, 원래는 8월까지만 1개월 정도 앞당겨서 해산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위 업무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해산 신고와 잔여재산 국고 귀속, 청산결과 보고 등 각종 행정절차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소송 대응이 마무리돼야 완전하게 청산이 된다.
조직위에 파견된 여가부 소속 직원 3명과 민간 채용직 2명 등 5명이 남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잼버리의 유치부터 폐막까지 전 과정을 복기할 백서도 8월 중 발간된다.
앞서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 4만3000여명이 참석한 잼버리는 지난해 8월 1일 부안 새만금 일대에서 개막했으나, 40도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염과 열악한 시설 운영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조기 퇴소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 4월 발간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독립 검토 패널 보고서'에 잼버리 파행 원인을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신보, 글로컬 스타트업 육성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신용보증기금과 '글로벌(Glocal) 스타트업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이날 협약은 전북자치도와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해 창업생태계의 수도권 편중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도는 매년 창업 후 7년 이내 지역특화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글로벌

스타트업 특화보증'을 적용한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특화보증'은 보증 한도 10억에서 최고 200억, 보증비율 100%, 고정보증료를 0.5%를 적용하여 보증금액은 높이고 수수료는 낮은 비수도권 스타트업 전용 특화보증 상품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벤처투자 규모 축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제14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가 지난 13일 전주 중부 비전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과 가족, 지도교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4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성료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미술'

전국 초·중·고교 20여 미술 꿈나무들 참가
이정원군, '대상' 영예... 이주열군 '최우수상'
이경근군 '우수상'·노유찬군 '장려상' 수상

전국 초·중·고교 미술 꿈나무들이 무대 위에서 놀라운 미술을 펼쳤다.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회장 김승곤)이 주최·주관하는 '제14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가 지난 13일 성황리에 열렸다.
(화보 16면)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는 청소년 미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전주매일신문사와 전주시가 후원했다.
국민MC 서정우씨의 사회로 진행된 경연대회는 전국 곳곳에서 온 20여 꿈나무(팀 포함)들이 참가했다. 소경의 미술사와 이희만 미술사는 심사위원을 맡았다.
대회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서 공,

카드, 링, 불꽃, 연기 등을 이용해 화려한 묘기를 선보였다. 또한, 쇼맨십으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특별출연자인 프로미술사 도기문씨는 무대 위에서 재치있는 컨셉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행사 분위기를 더 흥겹게 했다. 도씨는 영국 블랙플 매지 컨벤션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력을 갖춘 실력있는 프로미술사이다.
이날 대상의 영광은 이정원(서울 성덕고2)군에게로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이주열(서울 현호초5)군이 차지했으며, 이경근(김제 덕암정보고2)군은 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장려상은 노유찬(대전 전자디자인고3)군이 수상받았으며, 조현경(광

주 조대부속중3)군은 인기상을 수상받았다.
김승진(경기 파주 신일비즈니스고1)군은 특별상을 받게 됐다.
대상을 차지한 이정원군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절 응원해주신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이주열군과 우수상을 차지한 이경근군, 장려상을 수상받은 노유찬군 등 기타 수상자들도 자신이 큰 상을 받게 된 것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더욱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그동안에 펼쳐진 미술경연대회 중 참가자들이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지도교사들도 더 많이 참석해 대회를 전보다 더 성공적으로 치르게 됐다"며 "그동안의 같고 닦은 기량을 이번 경연을 통해 맘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완주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하신 분에게는 세액공제와 담례품을 드립니다.

기부한도액
인당 연간 500만 원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담례품은 기부액 30% 범위 내로 최고 150만원까지

기부방법 (2023.1.~)

-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NH농협은행 기부금 대면접수창구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kakao 채널 **완주 고향사랑**

완주 고향사랑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 고향사랑팀 063-290-2391 ~ 2392